



LAMBETH CALL HUMAN DIGNITY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베드로의 첫째 편지 1:3

1 선언

- 1.1 하느님의 선한 창조의 선물(창세기 1:31) 가운데 인류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으며 하느님의 돌봄과 사랑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창세기 1:26-28).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할 때마다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영광의 반영된 모습을 봅니다.”ⁱⁱ
- 1.2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와 모든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요한의 복음서 3:16, 골로시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1:15-20,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5:18-19,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15:22,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5:14-17, 베드로의 첫째 편지2:9).ⁱⁱⁱ 인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살아있는 희망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베드로의 첫째 편지 1:3, 베드로의 둘째 편지 1:14).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자로서 인간은 하느님과 서로를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 4:11).^{iv}
- 1.3 하느님의 피조물의 놀라운 다양성은 인간의 다양성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독특하고 깊은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v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이러한 다양성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오순절과 요한의 묵시록 7:9에 나와 있는 환상은 성령의 연합하는 능력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고 서로의 선을 위해 사용될 때 다양성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를 보여줍니다.^{vi}
- 1.4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느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요한의 복음서 10:30, 골로시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1:15-16).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느님의 형상을 손상시킵니다.^{vii}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느님의 승리를 인정합니다(베드로의 첫째 편지 2:24, 베드로의 첫째 편지 3:18,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5:8). 각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보존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완전한 잠재력을 볼 수 있습니다.^{viii} 중생의 은사와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 백성인 교회는 하느님의 형상을 지니고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베드로의 첫째 편지 3:9-10,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3:28).
- 1.5 그러므로 보편 교회는 생명은 신성하며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생명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선언합니다.^{ix} 그러한 거룩한 기준에서 신실한 반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2 확인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3:9) 인간의 생명이라는 은총과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x 예수님이 자신을 부정한 자와 배신한 자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요한의 복음서13:12-17, 34-35).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느님 자녀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행동과 태도는 죄입니다. 식민주의, 대서양 노예 무역 등의 권력 남용의 잔재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xi} 누군가는 부를 쌓았고 누군가는 가난해졌습니다. 착취의 부당한 구조 위에 세워진 국제 경제 체제는 비인간적인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토지, 건강 및 교육에 대한 접근에 대한 깊은 불평등, 청년 착취, 부당한 노동 관행, 소수 민족, 이민자 및 난민에 대한 홀대, 인신매매의 비인간성, 종교적 박해,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압력, 성소수자 억압, 젠더 기반 폭력, 전쟁, 분쟁 중 성폭력에서 그러한 죄가 부분적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신실하게 대하는 건 경건한 공동체의 핵심 표식입니다(베드로의 첫째 편지 4:8-10).



- 2.1 하느님께서서는 생명을 불어넣는, 문화를 아우르는 공동체를 의도하십니다. 지역 선교 노력과 상황적 신학은 여러 문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깊은 수용, 논쟁, 채택 및 적응이 이루어짐을 증명합니다.^{xii} 그러나 성공회는 종종 식민주의의 맥락에서 국제화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인종적 우월주의에 입각한 비인간화 관행에 연루된 제국주의적 성공회의 존재 및 지속적 영향을 인정합니다.^{xiii}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모두는 상황화 신학의 풍부한 다양성을 환영하고, 잔인하고 착취적인 식민주의에 성공회가 가담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2.2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사회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줍니다.^{xiv} 빈곤 퇴치에 진전이 있었지만^{xv}, 세계적인 전염병, 인플레이션 상승, 전쟁으로 인해 빈곤 감소가 전례 없이 역전되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기후 비상사태(지구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는 현재와 미래에 빈곤을 근절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창출하려는 노력에 도전적인 불안정성과 식량 불안을 야기합니다.^{xvi} 2020년에는 1억 2000만~1억 2400만 명이 추가로 극심한 빈곤에 빠졌습니다.^{xvii} 2022년에는 6억 5,700만~6억 7,60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 처할 것으로 추산됩니다.^{xviii} 우리는 이러한 수치에 안타까워하며 빈곤이 여성들과 여아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통탄합니다.^{xix}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다짐이란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연대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불의에 맞서 증언함을 의미합니다.
- 2.3 젠더나 섹슈얼리티에 근거한 편견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합니다. 성공회 정치적 특성, 특히 관구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인간 존엄성과 인간의 섹슈얼리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견 불일치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어지는 대화에서 존엄성 보호를 경험합니다. 성공회 전체는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믿으며 신실한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한 지체”이며 존중받고, 돌보고, 정중히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I.10, 1998).^{xx} 신중한 신학적 성찰과 분별의 과정을 거친 후, 많은 관구에서는 동성 결혼이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Lambeth 결의안 I.10(1998)은 “동성 결합의 합법화 또는 축복”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xxi} 다른 관구에서는 신중한 신학적 성찰과 분별 과정을 거쳐 동성 결합/결혼을 축복하고 환영했습니다. 주교로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깊은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경청하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구체적 요청(청원)

성서는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내재적으로 존엄성이 있으며 평등하다고 증거합니다. 세계성공회 공동체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 하느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평등합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에서 세상 문화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요한의 묵시록 21:24). 그러므로 2022년 Lambeth Conference에 모인 주교들은 모든 피조물과 문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것을 교회에 촉구합니다. 우리는 세계성공회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 3.1 회복적 행동을 위한 대주교 위원회(Archbishop's Commission for Redemptive Action, ACRA) 설립 지지
- 이 작업에는 네 가지 이상의 과제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첫째, 캔터베리 대주교는 다수 세계(Majority World)의 신학자(식민주의와 노예제를 경험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를 의장으로 하는 성공회 신학자 그룹으로 ACRA를 소집해야 합니다. ACRA는 대서양 동산 노예 제도에 대한 교회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해 영국 성공회 재무위원회(Church Commissioners for England)가 작성한 보고서와 포렌직 회계를 연구할 것입니다.^{xxii}
- 둘째, ACRA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구속이라는 위대한 성서적 전통과 화해의 사역에 대한 교회의 부름에 근거하여(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5:17-19) 만회적 행동 및 배상의 통전적 신학을 수립하고 발표할 것입니다.^{xxiii} 우리는 캔터베리 대주교(영국 성공회 재무위원회의 운영위원장)에게 요청합니다. 이러한 신학이 식민주의와 노예제에 대한 교회의 연결 고리에 대한 위원들의 대응을 형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 셋째, ACRA는 성공회 재무 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복적 행동의 세계성공회 전반의 증인이 되는 기준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파악할 것입니다.
- ACRA는 분기별 진행 보고서를 캔터베리 대주교와 세계성공회협의회(ACC)에 제공합니다.



3.2 세계 성공회 전반에 걸친 사회적 보호 자금 지원 조치

이러한 행동은 가능한 경우 정부에 사회 보호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보호를 위해 행동하는 세계성공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첫째, 관련 출처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다음 Primates' Meeting(의장주교 모임)에서 의장주교들은 자신이 처한 맥락에서 사회적 보호가 의미하는 바를 함께 탐구해야 합니다.^{xxiv} 의장주교들은 사회 보호 제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잠재력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동시에, 주교와 교구가 지역 상황에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할 것입니다.

둘째, 빈곤은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다면적 문제” 이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제도적, 정신적 자원을 동원해야 합니다.^{xxv} 빈곤 퇴치, 특히 청년 빈곤에 대해 영적인 차원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며 접근하기 위해 ACC에 성공회 혁신 기금(Anglican Innovation Fund, AIF)을 설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기금은 사회적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빈곤 퇴치를 위한 프로젝트나 기업을 설립하는 청년(18-30세)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넓힐 것입니다. 3.1과 관련하여 이 이니셔티브는 역사적인 노예 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ACRA 및 성공회 재무위원회의 대응으로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세계성공회 사무국의 업무를 확장하여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

우리는 ACC에 요청합니다. (ACO의 관련 네트워크 및 부서 및 Lambeth 1998 결의안 I.10을 참고하여) 젠더 정의에 대한 ACC의 노력이 인간 존엄성을 향한 관구 내 및 관구 사이의 비전과 실천을 젠더 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에도 관심을 기울여 도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할지 여부를 검토해 주십시오. ACC-19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구 및 관구 간 보고서가 제출되고 추가 권고 사항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용 자료

- i. 세계 성공회 일치 신앙 직제 위원회(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하느님의 선물과 인류에 대한 부름: 성공회 신학 인류학: 일치 신앙 직제 보고서 3(London: ACC, 2021), 9, 12, 14–25, 42
https://www.anglicancommunion.org/media/460188/UFO_IASCUFO_Papers-3-and-4-God-So-Loved-the-World_v2_en.pdf 저술 참고. 기독교 전통의 장애: 읽기(Grand Rapids: Eerdmans, 2012); 세계 교회 협의회, 존재라는 선물: 모든 이를 위한 모두의 교회가 되라고 부름을 받다(2016) <https://tinyurl.com/7kyvdnrb>
- ii.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24
- iii. 성공회-정교회 신학적 대화를 위한 국제 위원회(ICAOTD),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희망 가득한 인류학 (“The Buffalo Statement”, 2015), 5–12. Lambeth 1998, I.10c;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75–77.
- iv.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34–40.
- v.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24.
- vi.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10–11.
- vii.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12, 50–57.
- viii.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9–11, 30–35.



- ix. ICAOTD,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Lambeth 2008, 섹션 C(인간 및 사회 정의); Lambeth 1998, I.1, 2, 4, 5, 9, 14, 15; III.21, 22.
- x.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26-30.
- xi.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53-54. 참조: Jeremy M. Bergen, 교회의 회개: 죄 지은 과거를 마주하는 교회 (London: T&T Clark, 2011); 국제노동기구(ILO), Walk Free,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현대판 노예제, 강제 노동 및 강제 결혼에 대한 세계적 추정* (Geneva: ILO 간행물, 2022)
- xii. 참조: Lamin Sanneh, *메시지를 번역하다: 문화에 미치는 선교의 영향 개정판* (Maryknoll: Orbis, 2009); Jehu H. Hanciles, *이주 그리고 세계적 기독교 형성* (Grand Rapids: Eerdmans, 2021); William L. Sachs and Robert S. Heaney, *성공회의 약속* (London: SCM, 2019).
- xiii. 참조: Rowan Strong, *성공회와 영국 제국*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Ian T. Douglas & Pui-lan Kwok eds., *식민주의 성공회를 넘어서: 21세기의 세계성공회 공동체* (New York: Church Publishing, 2000).
- xiv. 참조: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52-54.
- xv. Andrea Peer and Sevil Omer, “세계적 빈곤: 사실, 자주 묻는 질문, 도울 수 있는 방법” <https://www.worldvision.org/sponsorship-news-stories/global-poverty-facts>, 2021년 8월 23일 (2022년 6월 10일 발췌).
- xvi. UN, 총회, 73차 세션(2018년 10월 18일), 제2위원회, 의제 항목 24(a), “빈곤 퇴치 및 기타 개발 문제: 빈곤 퇴치를 위한 제3차 UN 10년(2018-2027) 이행”, 4.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12-13, 58-67.
- xvii. <https://sdgs.un.org/goals/goal1> 2022년 6월 10일 자 출처.
- xviii. ‘극심한 빈곤(extreme poverty)’의 기준은 하루 1.9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함. 참조: Daniel Gerszon Mahler, Nishant Yonzan, Ruth Hill, Christoph Lakner, Haoyu Wu and Nobuo Yoshida, “팬데믹, 물가, 그리고 빈곤” <https://blogs.worldbank.org/opendata/pandemic-prices-and-poverty>, 2022년 4월 13일(2022년 8월 10일 자 출처). 2022년 6월 11일 자 <https://www.un.org/en/global-issues/ending-poverty> 참조. 기후 변화 및 이주 패턴에 대한 정보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의 6차 평가 보고서에 대한 워킹 그룹 III 기여, “기후 변화 2022: 기후변화의 이주” (2022년 4월), 2-54 - 2-55; 3-96 - 3-109. https://www.ipcc.ch/report/ar6/wg3/IPCC_AR6_WGIII_FinalDraft_FullReport.pdf 2022년 6월 27일 자 출처.
- xix. UN, 총회, 73차 세션(2018년 10월 18일), 제2위원회, 의제 항목 24(a), “빈곤 퇴치 및 기타 개발 문제: 빈곤 퇴치를 위한 제3차 UN 10년(2018-2027) 이행”, 3.
- xx. Lambeth 1998, 1.10 c, d
- xxi. Lambeth 1998 1.10 e
- xxii. <https://www.churchofengland.org/sites/default/files/2022-06/Church%20Commissioners%20research%20report%20final.pdf> 2022년 6월 28일 자 출처.
- xxiii. IASCUFO,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75-77. 참조: IASCUFO, *하느님의 주권과 우리의 구원: 성공회 신학 성명서: 일치 신앙 직제 보고서 4* (London: ACC, 2021), 82-84.



- xxiv. 사회적 보호란 근로 조건의 극적인 변화나 충격적 변화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나 시스템입니다. 사회적 보호는 고용주가 직원과 위험을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예를 들어 연금 혜택, 저금리 대출, 의료서비스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등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위험 분담”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Truman Packard, Ugo Gentilini, Margaret Grosh, Philip O’Keefe, Robert Palacios, David Robalino, and Indhira Santos, *Protecting All: Risk Sharing for a Diverse and Diversifying World of Work*(모두를 보호하다: 다양하고 다각화 되어 가는 일터 세계를 위한 위험 분담 (Washington D.C.: 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 2019)<https://bitly.ws/zBmR> 2022년 6월 21일.
- xxv. UN, 총회, 73차 세션(2018년 10월 18일), 제2위원회, 의제 항목 24(a), “빈곤 퇴치 및 기타 개발 문제: 빈곤 퇴치를 위한 제3차 UN 10년(2018–2027) 이행, 3.